한소영씨,

잘 지내시는지요? 한국관의 매니저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축하인사가 늦었네요.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이사를 하셨는지요? 올해 전시 때문에 워밍업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리팀은 여기에서 귀국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3월 3일 오픈하여 5월 7일까지 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소영씨께 도움을 청합니다.

요즘 타 국가관에서 전시 안내 이메일이 가끔 옵니다. 아마도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서 받은 이메일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컨대,

Flanders Architecture Institute <u>nieuwsbrief@vai.be</u> 도메인: mail229.atl101.mcdlv.net

이번 서울 귀국전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예술위원회의 국내외 행사를 VB 재단의 메일리스트를 사용하여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지요?

- 1) 구체적으로는 정리된 2016년 국가관 큐레이터 등 이멜 리스트를 재단으로부터 아르코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벨기에관처럼 어떻게 뉴스를 배포하고 있는지 문의

번거로운 부탁인데 한번 알아보아 줄 수 있는지요?

새로운 일을 즐기시기를 바라며,

김성홍드림